

광주 지역 기업들, 예금 줄이고 빚 갚았다

지난해말 예금 잔액 30.8조...전년비 9천억 감소 '19년만에 최대폭' 고금리·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출 상환 등 현금 유동성 확보 나선 듯

지난해 광주기업들이 예금은행에 맡긴 돈이 19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기업들의 원화예금 잔액은 30조 8301억원으로 전년(31조6194억원) 대비 7893억원(2.6%) 감소했다.

이는 전국 기업들의 원화예금 감소치인 0.9%에 3배 가까운 수치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5년 이후 광주지역 예금은행의 기업 원화예금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18년에 이어 지난해가 6번째다. 과거 몇 차례 원화예금 잔액감소 상황이 벌어졌지만, 감소금액 규모를 보면 지난해 역대 최대 금액이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앞서 최대 금액은 지난 2005년 기록한 4319억원이었다. 기업들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는 이유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를 갚는데 부담을 느껴,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요구불 예금에 손을 댄 것이라는 분

석이나 나온다. 요구불 예금은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을 뜻하며,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별단 예금 등을 포함한다.

광주지역 기업의 요구불 예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9026억원으로 전년 말(8조 3055억원)보다 1조4029억원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보통 예금이 전년 대비 9293억원 감소했고, 별단 예금과 당좌예금은 각각 2171억원, 160억원 줄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기업 원화예금 잔액 역시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전국 기업 원화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37조5020억원으로 전년 동기(643조3280억원) 대비 5조8260억원(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기준으로 기업 원화예금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4년 말 전년 대비 4조7070억원 줄어든 이후 두 번째다.

국내 기업들도 광주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두 곳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기업 원화예금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요구불 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5조61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280억원(1.1%) 줄었고, 저축성 예금 잔액 역시 522조 4410억원으로 4조5980억원(0.9%) 감소했다.

단국적인 기업의 예금 잔액 하락세는 지난해 통계계의 흐름 상 예고된 사안이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저축성 예금 중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총예금은 772조 4270억원으로 전년(796조3480억원) 대비 3.0% 감소했다.

예금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저축성 예금의 예금주는 주로 기업으로, 지난 2013년 말 이후 지난해 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또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예금 회전율은 월 1.4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 등의 평균 잔액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이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정기 예·적금 만기 때 재예치보다 대출 상환 등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퇴직연금 IRP 수익률 '은행권 1위'

지난해 4분기 연 17.7%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3분기 연속 퇴직연금 IRP형(개인형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운용 수익률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의 지난해 4분기 IRP 운용 수익률은 연 17.7%로, 은행권 1위에 올랐고,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포함) 부문으로 보면 전체 2위를 달성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2·3분기 IRP와 DB형(확정급여형) 부문에서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수익률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원리금 비보장 상품 중 DB형 운용 수익률에서 연 11.8%, DC형(확정기여형) 연 13.6%로 퇴직연금 전체 부문에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금 규모 상위 10개 기관'에 광주은행이 포함됐으며,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43개사 중 상위 8번째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순위다.

배인명 광주은행 신약금부장은 "이번 성과는 광주은행이 지난해 원리금비보장상품 라인업을 확



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주효했으며, 광주은행 본점과 분점, 상무지역에 위치한 전문 PB센터를 통한 연금관리 전문가의 대면 수익률 관리 서비스가 효과적이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

을 찾아 소중한 연금 자산을 맡겨주시는 거래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진공 광주본부, 3천억 규모 정책자금 지원

신속 지원·대우위니아 협력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광주지역본부는 21일 올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정책자금 중점 지원 방향은 ▲신속 지원 및 시설투자 강화 ▲혁신 중소기업 육성 ▲취약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등이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2985억원으로, 중진공은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시설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혁신분야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우위니아 협력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기업

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이밖에도 산·학·연·관 협업체 구성과 기업간·기업별 지원으로 미래차 전환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견인할 계획이며, 수·발주기업 간 거래관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을 돕는 사업전환자금과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고, 수출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진공 호남연수원도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연수를 확대하고 정책 현안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연수와 외국인·경력단절여성·시니어 대상 연수를 신설 운영할 방침이다.

국광대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중진공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건설 보증사고 환급 이행 실시

광주시, 26~29일 역사민속박물관...신안동·궁동 오피스텔 계약자 수기동 오피스텔도 보증사고 현장 지정 예정...빠른 환급 지원키로

광주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의 한국건설(주)오피스텔 분양계약자의 환급이행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이며, 서류접수는 북구 용봉동 역사민속박물관 1층 시청각실에서 받는다.

접수일정은 26~27일 북구 신안동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서류 접수, 28~29일 동구 궁동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서류 접수 등이다.

단지와 동호수별로 접수시간이 다르므로,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환급이행 준비 서류는 ▲입대차계약서 원본 ▲입주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등) ▲환급금 지급을 위한 계좌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등이다.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 현장도 한국건설(주)이 지난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이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되면,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근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분양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분양계약자들은 조속한 환급 완료를 위해 접수기한 내 환급서류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 수기동 현장도 빠른 시간 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채권관리 업무협의회 개최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20일 광주본부 회의실에서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채권관리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금융기관의 건정성 악화가 대출 축소 등 금융중개기능 약화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업무협의회에 참석한 지역 농협 채권관리 관계자 20명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금융기관 건정성 이슈와 각 농협별 연체 현황 등을 분석하고, 연체 감축 사례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또 연체비율과 고정이하 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등을 종합 평가해 농협의 건정성을 증명하는 '클린뱅크 인증' 제도 교육을 병행해, 지역 농·축협 자산건전성 관련 대내외 공신력을 높일 것을 다짐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선제적인 채권관리를 통한 연체 진입방지 노력과 관리시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금리상승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속성장을 위한 건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현장컨설팅 공동 개최

산단공 광주본부-코트라, 해외시장개척·디지털마케팅 프로그램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산단공)는 코트라(KOTRA)와 21일 지역 수출 관심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 및 현장컨설팅'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단공과 KOTRA의 협업사업인 해외시장개척, 디지털마케팅 프로그램 등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산단공 광주본부는 올해 '산업단지 수출지원단을 운영해 마케팅, 제품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전략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날 또 수출 관련 실무교육과 전문컨설팅도 함께 실시했다. 또 수출전문위원과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장개척을 위한 바이어 발굴·매칭 노후를 전달했다.

산단공에서는 올해 수출타깃기업을 선정하고,

KOTRA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 등 입주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황상현 산단공 광주지역본부장은 "수출전문기관과의 협업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53.31(-4.48)
↓ 코스닥	864.07(-2.10)
↓ 금리(국고채 3년)	3.402(-0.003)
↓ 환율(USD)	1334.70(-2.90)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 CEO 무역포럼' 개최

양동구 광주국제청장 강연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1일 '제17회 광주전남 CEO 무역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포럼에는 양동구 광주지방국제청 청장이 '기업인에게 도움 되는 국제 행정 소거'를 주제로 강연했다.

연사로 나선 양동구 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양 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면서 "납부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환급세액 조기지급,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제도 등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과 홈택스 전용상담시스템을 통해 세무상담이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무역포럼은 기업들간 네트워킹 장 마련을 위해



무역협회가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 포럼에는 80여명의 무역업계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동원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이번 포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